



얼짱 몸짱 재능짱 심박자를 두루 갖춘 그녀 Miss 엠텍비전 眞, 장은화 사원

팍리스 업체인 엠텍비전 제조기술실에 근무하고 있는 장은화 사원은 사람들을 두 번 놀래킨다. 귀염성 있는 얼굴에 긴 생머리,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천상 여자 같은 외모의 그녀. 하지만 막상 몸을 일으켜 의자에서 일어나면 모두들 그녀의 큰 키에 입이 떡 벌어진다. 179cm에 달하는 늘씬한 키. 그녀에게 모두들 처음으로 묻는 말은 '무얼 먹고 그리 키가 컸느냐'다.

요즘처럼 몸짱이 대우받는 시대에 그녀는 못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막상 당사자는 2006년 새해소망으로 키가 5cm만 줄어들게 해달라고 빌었다. 키가 너무 크다 보니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또 체형에 맞는 바지를 찾기도 너무 힘들단다.

장은화 사원이 지닌 또 하나 의외의 모습은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무척이나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 출중한 미모와 더불어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회사 내에서 그녀의 인기는 연일 상승가다. 남자직원들과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허물없이 지내며 적극적인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엠텍비전 사보에 '아지라엘'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아마추어 만화가이기도 하다. 만화에만 재능이 있나 싶었더니, 이번엔 노래도 수준급이란다.

"사내 밴드에서 메인보컬로 활동 중이에요. 지금까지 4번 공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신나고 흥겹던지, 한때 꿈꿨던 가수로서의 길이 무척 아쉬워지더라고요."

다재다능한 그녀는 역시 꿈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진지하게 가수의 길을 고려하던 그녀. 하지만 가수 데뷔의 가장 큰 방해요소는 큰 키였다. 키가 너무 큰 탓에 함께 어울려 그룹을 이룰 멤버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키가 큰 덕에 한번 본 사람은 쉽게 자신을 기억해 주니 그것으로 섭섭함을 달랠란다.

장은화 사원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 먼 훗날, 멋진 길거리공연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인생에서 하나하나 완성해나가는 기쁨도 크잖아요. 조금씩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서 하나씩 채우고 더해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색랭킹왕
TOP RANKING
IN
VENTURE